

민주성지 짓밟는 광주시청 '비정규 무한탄압'

✎ 특별취재팀/노동과세계 | ⓒ 승인 2007.09.18 08:08

[사진3]

광주시청에서 일하다 집단해고된 비정규노동자들이 17일자로 191일째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다.

광주시청 비정규직 노동자는 "광주시청은 비정규직이라고 사람으로조차 여기지 않고 여성이라고 능멸하며, 나이 들었다고 조롱하고 있다"며 고발하고 "이것이 그동안 민주인권을 자랑으로 여기는 광주시에서, 그것도 518 정신을 본받아 지었다는 광주시청에서 벌어졌던 일"이라고 탄식했다.

2004년 3월 박광태 시장이나 다른 시청공무원들이 새로운 청사로 이전해 오기 전부터 갓 지어진 건물의 먼지더미를 뒤집어쓰며 이들은 박광태 시장이 지난 04년 3월 새청사로 오기 전부터 일하던 비정규노동자들이다. 새벽 6시에 출근 밤 11시까지 일을 했으며 당시 월 임금은 59만원. 더구나 광주시 담당공무원은 이들에게 자가용 세차를 강요하거나 해고 협박을 하는 등 부당노동 행위를 일삼았다는 게 광주시청 비정규노동자들의 설명이다.

광주시청 비정규노동자들은 "민주투사, 인권전도사를 자처하는 시장이 있는 광주시청에서 비정규직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 사람답게 살고 싶었다"며 절절한 심정을 표시하고 "그러나 그 바람에 대한 광주시 대담은 광주시청 공무원들을 동원해 자신의 어머니뻘 되는 여성들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며 집단폭행으로 인권유린했으며 집단해고를 했다"고 분개해 했다.

[사진1]

광주시청의 야만적인 노동탄압에 맞서 투쟁을 벌인 지 191일(2007년9월17일-편집자)째, 그동안 이들은 결사단식과 7보1배 투쟁, 노숙투쟁 등을 통해 광주시청의 이율배반적인 노동탄압을 세상에 알려왔다.

지난 6월 26일 박광태 시장은 '시청비정규직이 청사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광주시청은 되레 고소고발 7건, 시청사 주변 출입금지 가처분신청 등 권력을 이용해 힘없는 5~60대 여성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아무리 광주시의 탄압이 악랄해 지더라도 우리는 투쟁을 멈출 수 없다"며 "민주성지 광주에서 비정규직도 사람답게 살 수 있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 딸아들에게 비정규직의 멍에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지금 광주에서는 시청비정규직 집단해고와 인화학교 성폭력 문제 등 무책임·폭력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이 드세지는 형국이다. 때문에 광주시청 노동탄압도 잠시 주춤거리는 추임새다.

광주시청 비정규노동자들은 "박광태, 당신이 진정 민주인권의 도시 광주시장이라면 더 이상 시청비정규 직에게 눈물을 강요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지난 6월 박광태, 당신 스스로 했던 약속을 지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시청비정규직들이 원래의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라"고 비정규노동자들은 거듭 촉구 중이다.

[사진2]

17일 오후, 브라질 MST(무토지농민운동) 노동자들이 광주시청 비정규노동자들이 기거하는 사무실을 방문했다.

이들은 80년 5.18 광주를 기억하면서 2007년 9월17일 광주에서 벌어지는 광주시청의 노동탄압 만행을 듣고 깜짝 놀란다. 특히 스스로 민주투사를 자처하는 박광태 시장이 저지른 폭행과 인권유린에 충격을 받았으며, 브라질 노동자들은 'Solidarity(연대)'를 외치며 함께 이 투쟁을 승리로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별취재팀/노동과세계 kctu@nodong.org